

경북TP, 차량용 알루미늄 표면처리 개발 체계 구축 MOU

기사 입력 : 2019-02-26 11:56:00 최종 수정 : 2019-02-26 11:56 김중윤

Share f TALK N +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가 최근 차량용 알루미늄 표면처리 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에코플라스틱(대표 김영석), 테크트랜스(대표 유재용), 대구한의대 비철금속표면처리센터(센터장 유재인)가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불량률이 높은 차량용 알루미늄 루프랙 표면처리 기술과 관련,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제공과 기업 및 기관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모색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TP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기업지원 사업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훈 경북TP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북 기업이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북에 소재한 산·학·연·관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최근 차량용 알루미늄 표면처리 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에코플라스틱(대표 김영석), 테크트랜스(대표 유재용), 대구한의대 비철금속표면처리센터(센터장 유재인)가 참여했다.

김중윤 기자 kyun@idaegu.com

<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f TALK N +

Tags 표면처리 경북 알루미늄 체계 차량 구축 개발 협약